

호랑이 방망이 재점화 시동

내일부터 KS 대비 본격 훈련

23일 전남대에서 미디어데이



KIA 타이거즈가 'V11'을 위한 방망이 점화에 나선다. KIA 선수들은 2017 정규시즌 챔피언의 자격으로 한국시리즈가 개막하는 24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시리즈에 직행하면서 KIA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1위 싸움을 하느라 지친 몸을 추스를 시간을 벌었다. 대신 오랜 공백이 있는 만큼 '실전 감각'이 숙제가 됐다. 최종전 이후 이틀간의 휴식을 취했던 KIA는 지난 6일 한국시리즈에 대비한 훈련에 돌입했다.

6일 비가 오면서 실내에서 간단하게 첫 훈련을 진행했던 선수들은 7·8일 그라운드에 올라 워밍업에 나섰다. 9일 휴식 후 10일 다시 방망이를 잡은 선수들은 11일 '라이브 게임'을 하면서 감잡기에 나섰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린 12일 휴식일을 보낸 선수들은 13일 훈련 뒤 14일 본격적인 실전 감각 다지기에 들어간다.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이번 훈련 첫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지난 3일 최종전 이후 처음 치르는 실전인 만큼 7이닝만 소화하면서 선수들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오는 28·29일 한국시리즈 4·5차전이 주간 경기로 진행되는 만큼 경기 개시 시간에 맞춰 오후 2시에 연습경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14일 경기를 포함 KIA는 세 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한국시리즈 리허설을 진행한다. 한국시리즈 야간 경기에 대비해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는 연습 경기 일정도 준비했다.

'V11'을 준비하는 KIA의 가장 막강한



한국시리즈를 앞둔 KIA 최형우(가운데)가 이명기(왼쪽)·김주찬(오른쪽)과 지난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무기는 역시 매서운 창이다.

'동반 20승'의 위업을 달성한 헥터와 양현종의 안정감이 돋보였던 시즌이었지만,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역대급 타선이 정규리그 우승의 디딤돌이었다.

'타격왕' 김선빈을 필두로 KIA는 올 시즌 무려 7명의 3할 타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쉬어갈 틈 없는 다이내믹 타선을 구축하면서 팀 타율 역시 0.302를 찍었다. 170개의 한방까지 앞세워 868타점을 만들며 812타점의 2위 두산을 압도했다.

후반기 타선이 주춤하면서 KIA의 질주

에 제동이 걸렸었다. 특히 전반기에 '해결사'로 활약했던 최형우의 방망이가 무뎠다면서 전체적인 타선의 힘이 떨어졌다. 그런 만큼 이번 연습 경기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은 최형우의 타석이다.

정규리그 우승으로 부담감을 던 KIA 타자들이 연습경기를 통해 전반기의 뜨거웠던 기억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KIA는 22일 라이브 훈련을 끝으로 한국시리즈 준비를 마무리한다.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는 오는 23일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란히 걷는 세계 1·2·3위 12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 렉시 톰프슨(왼쪽부터), 유소연, 박성현이 9번홀에서 티샷을 마치고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소연, 박성현, 렉시 톰프슨은 각각 여자골프 세계 랭킹 1·2·3위다. /연합뉴스

박성현 1R 완승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선두

같은 조 유소연·톰프슨은 10위권 밖으로

박성현(24)이 안방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첫날 공동 선두로 궤도의 출발을 했다.

'국내파' 김민선(22)과 호주 교포 이민지(21)도 공동선두로 첫 라운드를 마쳤다.

이들 외에도 한국 선수들이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해 한국인 선수의 LPGA 투어 시즌 최다승 달성 전망을 밝혔다.

지금까지 LPGA 투어 한국 선수들의 시즌 최다승은 2015년 15승이며,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우승은 총 13승이다.

박성현은 12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6천31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전반 2타를 줄인 박성현은 11번 홀(파4)과 13번 홀(파5)에 이어 17번 홀(파3), 18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에 성공해 공동 1위 자리에 등극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해 메이저대회 US오픈과 캐나다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슈퍼 루키'라 불리는 박성현은 이 대회에서 시즌 3승째를 노린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박성현은 상급 1위 자리를 굳히고, 올해의 선수(현재 3위)와 평균타수(현재 2위) 1위 자리도 함께 노릴 수 있다.

김민선은 버디 7개와 보기 1개, 호주 교포 이민지(21)는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적어내 공동선두에 올랐다. 김민선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LPGA 투어 진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최윤정(27)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후보 박민지(19), 리젯 살라스, 크리스티 커, 머리나 알렉스(이상 미국)는 나란히 5언더파 67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0)와 고진영(22), 김지현(26), 에이절 인(미국)은 4언더파 68타로 공동 9위를 달리며 선두를 추격하고 있다.

박성현과 동반 라운드를 펼쳐 '여자골프 톱3조'를 구성해 주목받은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과 세계랭킹 3위 렉시 톰프슨(미국)은 첫날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톰프슨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이고 전인지(23), 배선우(23) 등과 함께 공동 13위를 차지했다.

유소연은 이번과 72타로 주춤해 공동 40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패패승승승' 양키스 챔피언십시리즈행 클리블랜드 69년째 '와후 추장의 저주'



양키스, 디비전시리즈 5차전 5-2로 승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가 2017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 3승제)에서 2패 뒤 3연승 '반전'에 성공하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에 진출했다.

2승을 먼저 따고도 양키스의 일격에 당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정규시즌 '22연승 신화'를 뒤로 하고 가을야구를 마감했다. 22연승은 메이저리그 역대 두 번째 최다 연승 기록이다.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로 ALDS에 오른 클리블랜드는 1948년 이래 월드시리즈 우승과 멀어진 '와후 추장의 저주'를 69년째 풀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준우승의 아쉬움이 더욱 진해졌다.

양키스는 12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ALDS 5차전에서 클리블랜드를 5-2로 꺾었다.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미네소타 트윈스를 꺾고 ALDS에 오른 양키스는 이날 승리로 5년 만에 ALCS에 올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월드시리즈 티켓을 놓고 대결한다.

양키스의 3번 타자 유격수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공격을 이끌었다. 그레고리우스는 1회 초 선제 홈런포와 3회 초 2점포로 연타석 홈런을 폭발하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상대 투수는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코리 클루버였다. 클루버는 그레고리우스의 공세에 3.2이닝 3피안타(2피홈런) 2볼넷 6탈삼진 3실점으로 무너졌다.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에서는 베팅 끝에 몰렸던 워싱턴 내셔널스가 4차전에서 5-0으로 시카고 컵스를 잡고 기사회생했다.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맞춘 양 팀은 13일 내셔널리그 5차전에서 챔피언십시리즈(NLCS) 진출을 위한 외너무 다리 대결을 펼친다.

4차전은 원래 전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천 지연됐고, 결국 워싱턴에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애초 워싱턴의 4차전 선발투수는 테너 로어크였으나 하루 휴식일이 생겨 워싱턴은 스티브 스트래츠버그로 교체했고, 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경기에서 5-2로 승리한 양키스의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체프먼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를 적중했다. 스트래츠버그는 7이닝 동안 106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와 볼넷을 각각 3개, 2개 내줬으나 삼진을 12개나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또 워싱턴의 마이클 테일러는 컵스 구원 웨이드 데이비스를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만루 홈런을 작렬해 5-0 승리를 결정지었다. /연합뉴스

한국 양궁, 세계선수권 싹쓸이 도전

명실상부 세계 정상급인 한국 양궁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메달 싹쓸이'에 도전한다. 김성훈 총감독이 이끄는 리커브·컴파운드 대표팀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에서 개막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1일 현지에 도착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1개국 567명의 선수가 총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펼친다. 우리나라에선 모두 1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리커브 부문에서는 남자부 임동현, 김우진(이상 정주시청), 오진혁(현대제철), 최미선(광주여대), 여자부 장혜진(LH), 강재영(경희대)이 출격한다.

남녀 각각 4명의 올해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김종호(국군체육부대)와 기보배(광주시청)는 이번 시즌 월드컵 성적을 합산해 선정한 세계선수권대회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은 리커브에 걸린 5개의 금메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독식한다. 2년 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회

에서는 리커브 5개 중 4개를 휩쓸었다. 이번 대회도 남녀 개인과 단체, 혼성팀까지 전 종목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

기계식 활로 겨루는 컴파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량이 넓지 않아 리커브와 비교하면 국내 선수들의 세계랭킹 등은 떨어지지만 최근 들어 국제무대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대회에서도 컴파운드에서 금메달 2개를 얻어냈고, 이번 대회에서도 그 정도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컴파운드에서는 남자부 김중호, 최용희, 홍성호(이상 현대제철), 여자부 최보민(정주시청), 송운수, 소채원(이상 현대모비스)이 출전에 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